

1. 국내 입양 실태

지난 화요일(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었다. 올해 초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을 다루면서 입양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입양의 날을 며칠 앞둔 5월 8일에는 2살된 입양아가 칭얼거린다고 양아버지가 손과 나무주걱으로 머리를 마구 때려 아이를 의식 불명상태로 만들어 그가 긴급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입양의 날을 맞아 국내 입양 실태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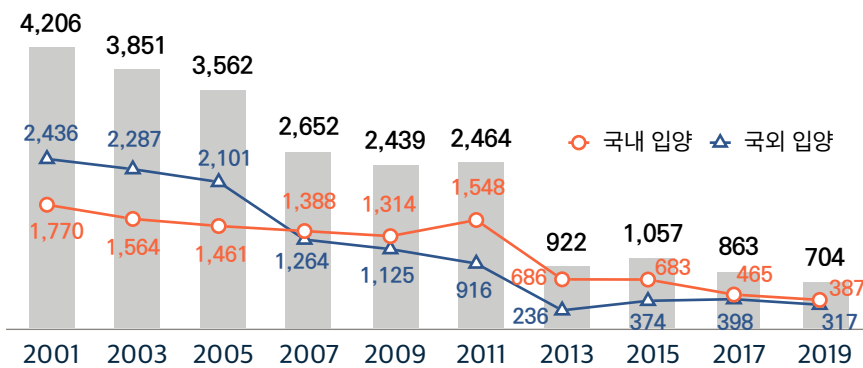
1



2007년부터 국내 입양아, 국외 입양아보다 많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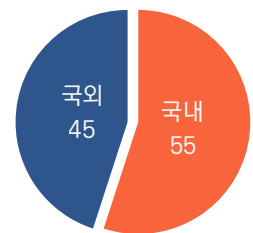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입양아는 그동안 해외로 보내는 국외 입양아가 국내 입양아보다 훨씬 많았는데, 그 격차가 점점 줄어 지난 2007년부터 역전, 국내 입양아가 더 많아져 현재는 국내와 국외 비율이 55 대 45 정도가 되고 있다.
- 총 입양아 수는 2001년 4,206명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2019년에는 704명으로 지난 20년간 큰 폭으로 줄었다.

[그림] 총 입양아 수 추이 (명)



*자료 출처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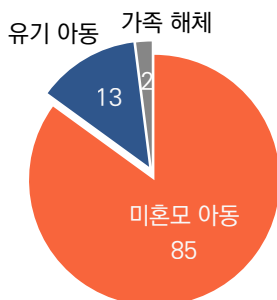
[그림] 2019년 입양아 비중 (국내 vs 국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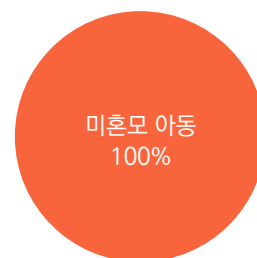
● 국내 입양아 유형, 85%가 미혼모의 아동!

- 입양아의 유형을 보면 국외 입양아는 100% 미혼모 아동이며, 국내 입양아는 85%가 미혼모 아동이고, 다음으로 유기 아동이 13%이다(2019년 기준).

[그림] 국내 입양아 유형 (%)



[그림] 국외 입양아 유형 (%)



*자료 출처 : 베이비뉴스, "작년 국외입양 100% 미혼모 아동... 국가는 어디 있나", 2020.09.11. (보건복지부, 2019년 입양통계)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92>